

# 創 刊 辭

會 長 權 寧 大

中性자가 발견된 直後이어서 原子核의 構造까지 제법 소상히 알고 있다고 自負하고 있던 大學時節에 루크레티우스의 敍事詩「事物의 本性에 대하여」를 敎材로 한 物理學史講義를 듣고 魅惑되었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아득한 옛날, 벌써 人間의 머리속 깊이 原子의 像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 놀라운 일이다. 寺田寅彦의 評에 따르면 現代物理學의 思考形式은 루크레티우스의 科學思想에서 보듯이 이미 그리스時代에 생겨난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歷史를 모르고 새로운 概念을 理解할 수 있으며, 역사를 떠나서 新理論을 세울 수 있으라는 답이 저절로 나온다.

오스트발트는 指摘하였다. 現代 科學敎育方法은 知識을 가르치는 데는 빛나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歷史意識의 欠如로 말미암아 큰 欠陷을 지니고 있다고, 특히 20세기로 접어들 무렵부터 숨을 돌릴 사이도 없이 잇달아 쏟아져나온 새 概念과 새 理論들을 비롯하여 加速的으로 늘어난 과학지식은 미처 그 由來를 把握할 겨를도 없이 결과만을 習得하기에 급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細分된 극히 좁은 분야에서조차 이루 消化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주하는 文獻 속에 파묻혀서 強迫당하고 密閉된 意識 속에서 연구에 몰두하다 보면 不知不識間에 과학의 本質과 限界를 忘却하게 되는 까닭에 近來에 와서와 같이 人類의 危機를 警告하지 않으면 안되게까지 破局으로 몰고 가는 過誤를 범하게 될밖에 없다. 이 모두가 과학자 자신이 앞뒤를 돌아다 보고 自己의 座標를 정확히 認識하지 못함과 研究의 目的을 뚜렷이 세우지 못한 데서 빚어지는 不幸이며 이를 막기 위하여서도 科學史를 피드백回路로 넣지 않으면 救濟될 길이 없을 것이다.

現代科學은 그것이 자라는 동안 수없이 많은 試行錯誤와 失敗를 거듭하며 부대끼고 갈려서 지금 같은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것이므로, 그의 眞價를 파악하려면 燦爛히 빛나고 있는 目前의 成果에만 讚辭를 보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쓰라린 事緣들까지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과학은 高度로 발달하였으되 인간은 더욱 坐不安席인 까닭도 여기에 緣由되고 있다.

돌이켜 보건대 이 땅에도 先覺者들이 있어서 先人 과학자들의 行跡을 더듬어 보고 그들이 물려 준 原理와 概念의 참뜻을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韓國科學史學會를 創立한 지도 於焉 十有八年의 歲月이 흘렀다.

이만큼 年輪이 자랐으니 적이나하면 제법 어엿한 學會로 成長하였으려면 만 원래 專攻學者가 殆無하였던 탓도 있고 科學史 역시 歷史學의 範疇에 속한다는 데서 新進氣銳의 科學徒들에게 疎外당하여 孤獨과 艱難의 가시밭길을 걸어오느라 折半의 세월을 休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세월은 흘러서 國家發展의 鼓動은 힘차게 울리고 實學에 대한 國民들의 關心度가 날로 높아감에 따라 歷史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이 새로와진 결과 科學史講座를 開設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時機에 學會誌를 創刊하게 된 것을 會員諸位와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學會의 發展과 學會誌의 充實을 期하기 위하여 會員諸位의 加一層의 奮發 있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